

卷 頭 辭

學問을 復興시키는 나라는 興하고 學問을 無視하는 나라는 例外없이 亡해버린다는 이 平凡한 眞理는 조금이라도 世界歷史를 精密히 觀察하는 사람에게는 쉬 알 수 있는 일이다. 20世紀初葉에 獨逸國의 復興이 前世期初에 獨逸의 學者들의 愛國의인 情熱로서 樹立한 學問의 隆盛에 基因한 歷史의인 事實이거나 前世紀末葉까지 未開社會의 하나에 不過하였던 日本國이 半世紀를 經過치 못한 짧은 期間內에 「一等國」에 伍列하기 위하여 그 얼마나 많은 精力을 學問의 建立을 위하여 消耗하였는가는 萬人周知의 事實이요, 또한 그 反面에 「世界第一」을 꿈꾸던 그 獨逸이 學問을 蔑視하더니 十年을 경과하지 못하고 亡해버렸고 日本 또한 역시 學者들을 賤視하더니 그 나라를 단숨에 말아먹었던 것도 吾人의 눈으로 잘 보고 있는 儼然한 歷史의인 事實이다.

지금 돌이켜 우리의 祖國의 경우를 살펴보건대 무슨 原因에서가 아니라 結局은 우리 自身이 無知・無能・腐敗하였기 때문에 他人의 손에 結縛當하였다가 이른바 「解放」이 된지도 於焉間 짧지 않은 20年의 歲月이 經過되었건만 이 나라에 있어서는 아직 學問復興의 曙光은 보이지 않고 世稱 學問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람들도 各급하면 어둑컴컴한 暗黑속에서 “Mephistopheles”의 짜즈에 맞추어 댄스를 하고 있거나 或은 우리를 捕縛하였던 그 사람들에 해서 무슨 學問의 부스러기라도 얻어보려는 좋지 않은 意味의 Epigonen 들이 相當數 있는 듯하다. 이 나라의 「指導者」들은 果然 이 나라 再建에 가장 緊要한 것이 學問의 再建에 있음 을 알고 있는 것인지 또는 그 얼마나한 精力을 이 方面에 쓰려고 하고 있는지 吾人은 잘 모 르겠다. 오직 우리가 아는것은 우리의 學問의 길은 文字 그대로 「荊棘의 路」이었고 가장 惡 條件 밑에서의 微弱한 努力이 있다는 事實과 이 나라 再建의 가장 基礎的이요 根本的인 事業이 이 學問再建의 路밖에 없고, 따라서 우리의 使命이 至極히 聖스럽고 至極히 큰바 있다는 이 儼然한 事實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뿐이다.

이러한 使命感에 呼應한 적은 事業의 하나가 바로 吾人法大의 「法學」誌이다. 이런 意味 에서 우리는 今年 第四卷을 내보내면서 自視하고 싶은 感도 없지않다. 「法學」은 每年 二回 發刊하여 온것이 今年은 이 한卷만 내보내게 됨에는 勿論 附隨的인 다른 몇가지 理由도 없 는 것은 아니지만, 重要한 理由는 二回분의 雜誌를 묶어서 한冊으로하여 十有餘星霜동안 우 리와 같이 同苦同樂 「荊棘의 路」를 걸어오신 鄭光鉉博士의 還曆紀念論文集으로 捧呈하고자 하여서이다. 鄭博士는 그의 六十平生의 大部分을 學問을 爲하여 바치셨고, 또한 吾人法大의

學徒들과 같이 十年 以上을 同居同樂하신 우리의 先輩이시매 그 遺曆을 祝賀하여 우리同僚들은 이 小論文集을 鄭博士께 드리고자 하는 바이다. 더욱이나 鄭博士께서는 停年年齡引下로 因하여 今年 八月末을 期하여 法大의 Faculty에서 떠나게 되셨으므로 더욱 哀惜의 情을 禁할 수 없다.

이 小冊子는 그 量에 있어서나 그 質에 있어서 至極히 적은 것이다. 우리法學界의 最初의 慶事인 이 紀念論文集이 이런 微微한 出版物밖에 안된點에 對하여 우리는 甚히 부끄러히 여기는 바이다. 그러나 그럼에도 不拘하고 우리는 또한 이 적은 論文들속에 世界學界에 對하여 한 challenge하는 우리의 精神이 엿보이고, 이 精神은 아무리 強한 暴風雨가 쏟아진다고 하여도 이에 微動도 없이 더욱더욱 힘차게 뻗혀올라 지금은 微微할지모르나 머지않은 將來에 온 世界學界에 적지않은 功獻의 金字塔를 세울뿐만 아니라 이것이 基礎가되어 이나라 再建에 적지않게 이바지할 수 있는 礎石이 될것을 믿고 또한 祈願함으로써 이 冊子의 意義를 찾고자 한다.

마지막으로 우리를 떠나시는 鄭博士의 남은 餘生에 더욱 더큰 發展과 健康과 幸福이 깃드 시옵기를 伏禱하여 마지 않는다.

남아가는 壬寅年을 떠나보내면서

劉 基 天 謹述